

정읍시 농촌개발 공동체 사업 활발

정부 공모 11개 사업 323억 확보
생활 편의·문화·복지 사업
기초생활 서비스 인프라 확충

정읍시의 농촌개발 등 공동체 사업이 활성화되고 있다. 정읍시에 따르면 시는 농촌지역의 지속적이고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결과 민선 7기 들어 현재까지 총 323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11개 사업을 추진하

는 중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신대인읍(80억)과 북면(60억)의 농촌 중심활성화사업과 입암면(40억)과 칠보면(40억), 감곡면(40억), 영원면(40억)의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을 비롯해 5개소의 마을 만들기사업(23억)이 있다. 지난달에도 정읍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이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국가 공모사업에 선정되면서 사업비 40억원이 추가 확보됐다. 시는 주민들로 구성된 사업지역 추진위원회와 긴밀히 협조해 지역 특성에 맞는 생활 편의와 문화·복지 등의 기초생활 서비스 관련 인프라를 늘려

나갈 계획이다. 또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주민들 스스로 역량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각종 지원정책도 시행할 예정이다. 현재도 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원해 국비 300억원 규모 예산배정이 가능한 '농촌협약'을 차질없이 준비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정읍시 관계자는 "주민들과 전문가, 행정인 긴밀한 소통으로 체계적인 농촌개발 계획을 수립해 2022년 공모사업에서도 반드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6·25 희생자 넋 위로...회문산 해원제



해원·화합·통일을 기원하는 제16회 회문산 해원제가 지난 25일 순창군 구림면 안정리 회문산 비목공원 위령탑 광장에서 보훈단체 대표와 구림면 주민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회문산

해원제는 6.25 한국전쟁 당시 치열한 전투로 돌아가신 순국선열과 무고하게 희생된 양민들의 명복을 기원하고 화해와 용서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다. <순창군 제공>

“달다 달어”...고당도 남원 춘향골 포도 본격 출하

큰 일교차로 올 단맛 더해
3kg 1박스에 3만7000원선

남원의 지역특화작목 중 하나인 '춘향골 포도'가 본격 출하에 들어갔다. 남원시에 따르면, 춘향골 포도는 6월 중순부터 8월 하순까지 수확된다. 평야부(금지·대강·주생·송동면) 지역 202개 농가(90ha)가 재배 중이며, 지난해에는 1100t을 출하해 57억원의 수익을 올렸다. 산간부보다 1개월가량 일찍 출하되는 평야부 포도(캠벨얼리)는 평균 14브릭스(brix)의 당도를 나타낸다. 올해의 경우 유독 큰 일교차로 인해 16브릭스 이상의 높은 당도를 보이고 있다. 본격 출하 중인 포도는 25일 기준 3kg 1박스 당 3만2000원~4만원 선에 거래되고 있다. 지난해 발생한 역대급 수해와 올해 이상저온으로 생산량이 감소하며 가격은 전년 대비 다소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소비자들의 수요는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남원산 포도의 인기 비결은 지리적 여건과 재배 기술에 있다. 섬진강과 요철을 따라 발달한 평야지의 풍부한 수량, 비옥한 토지, 풍부한 일조량은 명품 포도 재배의 기본 조건이다.



또, 20년 이상 베테랑 농가들의 노련한 재배 기술은 타 지역과 차별화된 맛과 향을 만들어 내고 있다. 여기에 남원시의 농가 지원도 한 몫을 하고 있다. 시는 고품질 포도 생산을 위해 하우스 지원, 과수시설 현대화사업 등을 꾸준히 추진 중이다. 춘

향골 명품 포도의 경쟁력은 지속 성장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지리산 산간부 지역에서 생산되는 포도는 7월 중순부터 10월 상순까지 수확된다. 남원에서는 총 680여 농가(360ha 규모)가 현재 포도를 재배하고 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

남원시 '축산악취 개선사업 공모' 대상 선정

30억원 확보...축산농가 지원

남원시가 축산 악취문제 해결을 위해 농식품부가 마련한 '2022년 축산악취개선사업 공모'에서 대상 자치단체로 선정됐다. 이 사업은 지난해부터 추진된 농식품부의 신규 사업으로 시군별 악취저감 종합계획을 심사·반영해 여건에 맞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전국에서 41개 자치단체가 농식품부에 사업을

신청했고 남원시는 전북도와 농식품부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둬 사업대상지에 선정됐다. 이에 따라 축산분뇨와 악취, 민원 해결을 위한 사업비 30억원을 확보한 시는 분뇨 정화방류시설, 악취저감시설, 퇴·액비화 시설 등 구축하고 악취저감을 위한 축산농가 지원에도 나설 예정이다. 남원시 관계자는 "축산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탈피하고 지속가능한 축산, 주민과 화합하는 축산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

익산시 신흥공원 행복정원 수변 산책로 개방

익산시가 신흥공원 일원에 조성한 '다리로움 행복정원'의 수변 산책로를 추가 조성해 개방했다. 다리로움 행복정원은 기존 산책로 정비와 함께 임시광장 내 미로정원·산책로가 추가로 조성됐다. 시는 지난해 약 1km의 산책로와 2200㎡ 규모의 야외광장 등을 조성했으며 이번 사업으로 행복정원에 약 0.5km의 산책로(둘레길)가 더해졌다.

새로 추가된 산책로를 통해 숲속 길을 걸으며 저수지를 감상할 수 있도록 했다. 익산시 관계자는 "이번에 새롭게 조성된 산책로를 통해 익산 행복정원이 더욱 인기를 끌 것으로 기대된다"며 "코로나19로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하며 휴식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많이 활용돼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익산=유정영 기자 yjy@



익산시가 신흥공원 일원의 '다리로움 행복정원' 수변 산책로를 추가 조성해 개방했다. <익산시 제공>

고창군 생생농업인 헬스케어 지원사업 추진

경로당 등 건강 보조기구 보급

고창군이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농촌지역마을 농업인들에게 건강관리 보조기구를 보급하는 생생농업인 헬스케어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사진> '생생농업인 헬스케어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올해 복권기금과 군비 등 총 10억54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347개 경로당·마을회관에 안마의자와 혈압계, 발안마기, 온열안마매트 등 모두 415대의 건강관리기구를 공급한다. 이에 따라 농사에 지친 농업인들이 마을회관 등



에서 손쉽게 안마의자와 발마사지기를 받을 수 있으며, 보건소에 방문하지 않아도 수시로 혈압을 확인하는 등 스스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게 된다. 군은 지난해에도 지역 229개 마을에 건강관리 보조기구를 지원해 의료기관 방문이 쉽지 않은 고령 농업인들에게 호응을 얻었다. 고창군 관계자는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어르신들이 외출이 쉽지 않아 건강관리에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 경로당 방문이 가능해짐에 따라 호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농업인들과 어르신들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귀할수록 전문 브랜드 비타민하우스

45 북위 45도 이상
흑한에서

15 15년을 자란
차가버섯을 엄선

12 12배 고농축으로
영양을 짝 채운

시베리안 차가버섯



Vitamin House
구입문의 1588-8529

비타민하우스 전속모델 서경석